

## 「하숙집」에 나타난 애매모호성을 활용한 문학교육\*

최 석 무

### I

제임스 조이스는 『율리시스』의 프랑스어 번역가인 자크 브누아 메셴(Jacques Benoist-Mechin)에게 “나는 『율리시스』에 매우 많은 수수께끼와 퀴즈를 숨겨놓았기에 대학교수들은 수세기동안 내가 뜻하는 바를 논하느라 바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Ellmann 521). 이 말을 통해 조이스 작품의 기본적인 특징을 알 수 있다. 『율리시스』가 “대학교수들”이 풀어야 하는 “수수께끼와 퀴즈”로 가득하다는 사실은 작품이 난해하고 복잡하여 일반 독자들은 감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학자들이 『율리시스』를 해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조이스의 예측이 옳았음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자기 작품에 대한 이러한 조이스의 평가는 『율리시스』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의 최후 작품인 『피네간의 경야』는 말할 것도 없고 초기 작품인 『더블린 사람들』에서도 발견되는 작품구상의 기본 원칙이다. 『더블린 사람들』은 조이스가 20대 초반에 쓴 작품으

---

\* 본 연구는 2009년도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로 읽기가 비교적 용이하여 대학에서 흔히 가르치지 작품이지만, 수수께끼와 퀴즈가 가득하다. 그 동안 조이스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영문학자들도 이 작품에 나타난 수수께끼와 퀴즈를 풀기위해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이 작품에는 여전히 영문학자들이 풀어야 하는 논제를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도 연구가 계속될 것이다.

필립 헤링(Phillip F. Herring)은 조이스가 작품을 구상한 기본적인 원칙을 “불확실성의 원칙”(Joyce’s Uncertainty Principle)이라 부르고 “주된 증거를 생략하거나 애매모호성(ambiguity)을 도입해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게 만들었다”고 말한다(x). 이 원칙을 통해 조이스는 “신비로움(mystery)을 만들어 내는 전략”을 구상하여, “회의주의(skepticism)를 권장하고 신비로움을 지속적으로 해석하게 했다”(Herring x-xi). 이러한 조이스의 문학관은 20세기 초의 철학가들이나 자연 과학자들이 주장한 세계관과 일치한다. 베르그송(Bergson)의 절대적인 시간개념의 부정, 막스 플랑크(Max Planck)의 양자이론, 아인슈타인(Einstein)의 상대성 원리 등은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해 파악할 수 있는 절대 진리가 존재하지 않고 세계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음을 주장한다. 조이스도 작품 속에 많은 수수께끼와 퀴즈를 통해서 “진실에 도달하는 우리 능력에 대한 회의감”(Herring 3)을 표출하려했다.

조이스 작품 속의 수수께끼와 퀴즈, 그리고 불확실성은 기본적으로 작품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독자들은 이러한 애매모호성 때문에 작품을 읽는데 어려움을 갖는다. 오늘날 실용적인 영어교육을 중시하여 영문학의 위기를 논하는 시대에 학생들이 고전문학, 특히 조이스와 같은 난해한 작가의 작품을 읽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대학에서 『더블린 사람들』을 강의할 경우에 작품의 애매모호성은 작품을 읽는 유용한 길잡이가 된다. 또한 애매모호성은 영문학을 통해 영어교육도 동시에 할 수 있어 장점으로 작용한다. 영어교육에서 “의미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데 조이스와 같은 문학작품은 “학생들이 문학 텍스트의 다양한 애매모호한 의미를 찾게 하여 의미를 추론하는 전반적인 능력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준다”(Lazar 19). 조이스 작품에 담긴 애매모호성은 특히 영어로 하는 영어강의 수업에 더욱더 잘 활용할 수 있다. 읽고 번역하는 문법번역식 수업(grammar translation method)은 우리말 강의의 경우에는 가능하나 영어로 하는 영문학 강의에서는 쉬운 영어로 다시 말하기 등의 방법 외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더블린 사람들』에서 애매모호한 부분은 토의·토론주제가 되

어 활발한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더블린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흔히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작품 중의 하나인 「하숙집」(“The Boarding House”)을 대학생에게 가르칠 때, 작품에 나타난 애매모호성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 특히, 토론주제와 이에 대한 가능한 설명을 제시하면서 조이스 작품에 담긴 애매모호성을 활용하는 수업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동안 조이스 연구에 있어서 작품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기에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은 수업모형 연구가 필요하다.

## II

학생들에게 「하숙집」을 과제로 읽게 한 후, 수업시간에 “도란(Doran)이 폴리(Polly)와 결혼해야 하는지 아니면 도망가야 하는지?”(D 61)를 토론하게 한다. 도란이 자기 자신에게 제기하는 이 질문은 간단하지만 대답은 그리 간단치 않다. 조이스는 두 가지 힘든 선택을 주고서 독자들이 갈등하게 하는 기법을 구사하고 있다. 도란의 선택이 어느 것이든지 간에 학생들은 작품 속에 제시된 증거를 바탕으로 각자의 의견을 발표한다. 이 토론과제는 작품 속에 명확한 증거가 표면적으로 없기에 학생들의 활발한 토론을 유도할 수 있다.

도란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작품에 흥미를 느끼게 한 후, 작품 내용에 대해 토의한다. 토의 주제는 “도란과 폴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이다. 헤링은 「하숙집」에서 ‘불확실의 원칙’이라 할 수 있는 몇 개의 예를 든다. 그 중에서 “도란과 폴리사이에 성적인 관계”(204)가 있었는지 증거가 없다고 말한다. 사실 이 문제는 도란과 폴리가 어떤 사이인지 파악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도란이 폴리와 결혼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보아 둘의 관계는 심각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도란과 폴리의 관계는 “어떤 것”(something, D 58), “연애 또는 일”(affair, D 58, 60, 61), “사건”(things, D 59), “죄”(sin, D 60, 62), “그것”(it, D 61, 62)이라고 언급된다. 이와 같이 애매모호하게 표현된 그들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학생들에게 찾게 한다.

도란과 폴리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작가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은 전적으로 그의 잘못만은 아니었다. 그는 독신자의 호기심에 찬 끈질긴 기억력으로 그녀의 옷, 숨결, 손가락이 우연히 스쳤던 처음 순간을 너무나 잘 기억했다. 그 후 어느 날 밤늦게 그가 잠자리에 들기 위해 옷을 벗고 있을 때, 그녀는 주저하면서 그의 문을 두드렸다. 그녀의 촛불이 바람에 꺼져서 그의 촛불로 불을 다시 붙여 달라고 했다. 그 날은 그녀가 목욕하는 날이었다. 그녀는 무늬가 찍힌 플라넬 천으로 된 앞이 터인 느슨한 화장복을 입고 있었다. (D 62, 밑줄은 필자의 것)

여기서 조이스는 막연한 “그 일”(it)을 사용해 둘의 관계를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독자들은 폴리의 행동에서 폴리가 목욕하는 날 꺼진 초에 불을 붙일 핑계로 도란에게 처음 접근하는 모습을 보지만 이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발전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장면 바로 앞에 제시된, 폴리와 무니여사와의 대화가 있기 수분 전에 일어난 아래의 장면은 두 사람과의 관계가 상당히 진전되었음을 보여준다. 학생들로 하여금 위의 예문에서 두 번째 줄친 부분과 다음 장면을 비교해 둘의 관계를 짐작하게 한다.

그가 샴쌍과 바지 차림으로 침대 가에 무기력하게 앉아 있을 때, 그녀가 문을 가볍게 두드리며 들어왔다. (D 61, 밑줄은 필자의 것)

첫째 예문에서 폴리가 문을 노크하는 동작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주저하면서”(timidly)라는 부사는 두 번째 예문에서 “가볍게”(lightly)로 바뀌어 있다. 이는 둘의 관계를 암시하는 것으로 폴리는 가볍게 문을 노크한 후,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도란의 방을 출입할 만큼 그와 가까운 사이이다. 조이스는 노크와 같은 사소하게 보이는 동작을 반복하여 서술하면서 두 사람사이의 관계를 암시한다. 그렇지만 두 예문이 시간적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아 독자는 노크하는 동작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다.

작품 속에서 유일하게 두 사람의 신체적 접촉을 표현하고 있는 다음 부분도 생략 부호로 끝을 맺어 키스 이상의 어떤 관계가 존재했는지 의문을 자아내게 한다.

그들은 각자 촛불을 들고서 발끝으로 살며시 함께 위층으로 가곤했다. 세 번째 층계참에서 그들은 아쉬운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종종 키스도 했다. 그는 너무

나 잘 기억했다, 그녀의 눈, 그녀 손의 촉감, 그리고 그 때의 황홀감을 . . . (D 62)

헤링은 『더블린 사람들』의 첫 번째 단편인 「자매들」에 등장하는 노먼(Gnomon)이 조이스 작품의 특징을 잘 대변해주는 용어임을 주장한다. 노먼은 불완전한 평행 사변형으로 평행사변형에서 한각을 포함하는 그 닳은끝을 떼어낸 나머지 형태의 도형을 말한다. 조이스가 사용한 “노먼식 언어는 생략, 의미의 틈새, 의미심장한 침묵, 의미없는 의식적 대화” 등을 포함한다(Herring 4). 위의 예문에서는 생략으로 서술을 끝내고 있어 둘의 관계가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이 생략되었는지 짐작하게 하는 활동을 통해 작품의 의미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다음은 도란이 무니여사와 면담하러간 후 혼자 도란의 방에 남은 폴리의 모습이다. 학생들에게 “베개들”(pillows)에 주목하여 읽게 한다.

[폴리]는 다시 침대로 돌아가서 침대발치에 앉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베개들을 쳐다보았고, 그것들은 은밀하고도 즐거운(amiable) 기억을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였다. (D 63-4)

남자 혼자 사는 방에 베개가 2개 이상 있다는 것은 그들이 같이 오랫동안 잠을 잤다는 것을 의미하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다. 또한 폴리가 베개를 보면서 “즐거운 기억”(amiable memories)을 가졌다고 했는데 “amiable”은 “보통 즐거운(agreeable)의 뜻으로 사용되지만, 현재는 사용되지 않지만 성적인(amorous)”이라는 의미도 가진다(Gifford 66). 그녀는 베개를 보면서 도란과 가진 성적관계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조이스는 몇 개의 예시를 통해 도란과 폴리가 성관계를 가질 정도로 가까운 사이임을 보여주고 있다. 조이스는 암시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애매모호하게 그들의 관계를 처리하고 있기에 독자는 쉽게 이들의 관계를 인지하지 못한다.

도란이 폴리와 성적관계를 가졌음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언급은 무니여사의 생각에서 찾을 수 있다. 그녀는 “그녀 딸이 정조를 잃은 것”(the loss of her daughter's honour, D 60)에 대해서 도란이 결혼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학생들은 “honour”의 뜻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작품에 “honour”란 단어가 세 번 등장한다. 학생들에게 각각의 경우, “honour”가 무슨 의미인지 문맥을 통해 짐작하게 한다. 도란과 관련된 두 번의 경우는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a man of honour, D 59), “그의 명예 의식”(his sense of honour, D 62)과 같이 “명예”란 뜻으로 사용된다. 반면에 폴리의 경우에는 “정조 또는 순결”의 뜻으로 사용된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honour”는 남녀 차별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이다.

따라서 헤링이 이 작품에서 불확실한 것이라 제시한 “도란과 폴리 사이에 성적인 관계”(204)는 불확실하지 않다. 그 다음으로 풀어야 하는 수수께끼는 이 단편 소설에서 도란과 폴리 사이의 성적관계가 일어난 사건의 전부인가의 문제이다. 폴리와 도란과의 관계는 그동안 폴리의 생활태도에 비추어봐서 문제가 되는지 텍스트 속에 나와 있는 증거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에게 폴리가 정숙한 여성인지 찾게 한다. 무니여사는 폴리가 하숙생과 “마음껏 사귀게 허락하였고”(D 57), 폴리는 “청년들과 연애를 한다”(D 58). 그렇지만 “어떤 젊은이도 심각하게 생각지 않았다”(D 58). 이는 폴리의 행동거지에 대한 하숙생들의 판단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폴리와 이들 간에 성적관계가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다음 정황을 통해 폴리의 처신에 문제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어느 날 저녁에 파티를 하면서 런던출신 약사는 폴리에게 “다소 빈정대는 말”(a rather free allusion, D 63)을 하자 잭이 난동을 부려 파티를 망친다. 이 약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텍스트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 말이 무엇인지 학생들에게 짐작하게 할 수 있다. 약사가 “악의가 없었다”(D 63)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잭은 “어떤 녀석이 자기 여동생에게 그러한 짓을 다시 하면 결단코 이빨로 목을 물어뜯어버릴 것이다”(D 63)라고 하면서 고향을 지른다. 잭의 반응은 하숙생들이 폴리를 함부로 대하는 분위기에 대한 위기의식의 표현일 것이다.

이미 여러 비평가가 이야기하듯이 무니여사의 하숙집은 사창가의 분위기를 보인다. 토치아나(Torchiana)는 “무니여사가 포주, 폴리가 창녀, 잭이 기동서방(bully bouncer)”(110)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무니여사는 “마담”(madame)이라 불리는데 이 말은 “사창가의 포주의 슬랭”(Gifford 63)이며, 그녀의 하숙집이 받은 “나쁜 평판”(D 61)이란 “성적인 문란을 암시”(Brown 268)한다. 조이스도 『피네간의 경야』(*Finnegans Wake*)에서 이 작품을 제목을 “boardelhouse”(FW 186)

라고 회화화한다. 여기서 “boardel”은 하숙(boarding)뿐만 아니라 매음굴(bordello)를 지칭하여 무니의 하숙집이 받은 나쁜 평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폴리가 정숙하지 못하다는 사실은 하숙생들 간에 이미 알려진 사실이기에 도란의 폴리와 의 성관계는 그리 큰일이 아닐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두 사람 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탐구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다음 구절에서 폴리의 행동이 이상하게 된 이유와 도란이 당황해한 이유, 그리고 무니여사가 결단을 내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학생들이 논의하게 한다.

폴리는 태도가 다소 이상해지기 시작했고 그 젊은이는 당황해하는 기색인 역력했다. 바로 이 때라고 판단한 무니여사는 마침내 끼어들었다. 그녀는 식칼로 고기를 다루듯이 도덕적인 문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이번 건에 대해서는 마음에 결심이 이미 선 상태였다. (D 58)

세 사람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진 것은 폴리의 임신 때문이 아닐까? 폴리가 도란에게 “나 어떻게 해야 해? 나 죽고 싶어”(D 62)라고 절망적으로 애원하는 모습에서도 그녀가 임신하였음을 의심할 수 있다. 도란이 무니여사와 면담을 하기 위해 방을 비운사이 폴리의 행동을 묘사한 다음 장면도 의미심장하다.

폴리는 울면서 침대 가에 잠시 동안 앉아 있었다. 그러더니 눈물을 닦고 거울 앞으로 갔다. 그녀는 수건 끝을 물병에 적시고 시원한 물로 눈을 말끔히 닦았다. 자신의 옆모습을 보고 머리핀을 귀 위쪽에 다시 꽂았다. (D 63, 밑줄은 필자의 것)

학생들에게 밑줄 친 부분에서 폴리가 거울을 통해 자신의 옆모습을 본 이유를 설명하게 한다. 이 때 거울에서 앞모습을 보는 것과 옆모습을 보는 것의 차이점을 논하게 한다. 임신부인 거울에 자신의 옆모습을 비춰 보면서 배가 불러오는 정도를 관찰한다. 위 지문에서 폴리는 정확한 임신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눈을 말끔히 닦고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닌지, 즉 그녀가 임신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있다.

그녀가 성모 마리아에 비유되는 다음 장면도 의미심장하다. 학생들이 다음 장면을 읽고 폴리가 성모마리아와 비슷한 점을 찾게 한다.

푸른 색조를 띠는 회색 눈을 지닌 [폴리]는 다른 사람과 말을 할 때 눈을 위로 치켜뜨는 습관이 있었다. 이것은 그녀가 다소 고집이 센 성모마리아처럼 보이게 했다. (D 57)

표면적으로 폴리의 말하는 모습이 성모마리아와 비슷하다고 묘사되어 있다. 학생들이 성모마리아의 임신의 특이성을 생각해 보게 하고 폴리와 유사성을 발견하게 한다. 성모마리아는 요셉(Joseph)과 결혼하기 전에 신의 섭리로 임신을 한다. 폴리를 성모마리아에 비유하여 조이스는 폴리가 임신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토치아나는 작품에서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폴리가 임신한 것으로 가정한다. 그는 도란과 요셉, 폴리와 성모마리아의 유사성을 지적하면서 폴리가 임신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114).

이와 같이 작품 분석을 통해 폴리가 임신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학생들에게 수업을 시작할 때 제기한 “도란이 폴리와 결혼해야 하는지 아니면 도망가야 하는지?”(D 61) 다시 질문한다. 특히 도망가야 한다고 대답한 학생들에게 아직도 그렇게 해야 하는지 집중적으로 질문한다.

### III

조이스의 글쓰기의 특징은 초기작품에 나오는 인물이 후기 작품에도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후기 작품을 읽으면서 초기작품의 인물의 선택이 옳았는지 점검할 수 있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 등장하는 스티븐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독자는 『율리시스』를 읽으면서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의 그의 판단이 옳았는지 진단할 수 있다. 「하숙집」의 경우에도 『율리시스』를 읽고 도란의 선택이 옳았는지 진단할 수 있다. 「키클롭스」(“Cyclops”)장에서 도란이 실제로 등장하여 그의 근황을 알 수 있다.

그는 똑바로 걸으려고 애쓰면서 밖으로 황급히 나갔다. 5시에 술에 만취되었군. 지난밤에 그는 경찰서에 끌려갈 뻔했지, 패디 리오나드가 A 14호 순경을 알았기에 망정이지. 폐점 시간이 지난 뒤 브라이드가의 밀주 점에서 완전히 만취되어, 술을 걸친 두 매음녀와 순찰중인 어떤 밤지기와 함께 성관계를 하고,



찾잔으로 흑맥주를 마시면서. (U 12.800-804)

그는 결코 행복한 모습이 아니다. 그는 오후 5시에 벌써 술에 취한 채 바니 커어넌 술집(Barney's Kiernan's pub)에 등장한다. 그리고 “술을 걸친 매음녀들과 관계”를 가지는 자로 묘사된다(U 12.803). 이러한 현재의 그의 모습을 읽게 한 후, 학생들이 도란의 선택이 옳았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또한 원치 않은 결혼이 현재의 도란의 상태를 만들었는지 학생들로 하여금 토의하게 한다.

「키클롭스」장은 또한 「하숙집」에서 도란과 폴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준다. 학생들에게 다음 장면을 읽게 하고 「하숙집」에서 애매모호하게 처리되어 확신할 수 없었던 내용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 알아보게 한다.

그가 결혼한 키가 작은 몽유병에 걸린 창녀(bitch)인, 집달관의 딸, 무니에게 돌아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은 거야, 어미는 하드위크가에서 하숙집(kip)을 경영하지, 그녀는 선창을 배회하곤 했는데 새벽 2시에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문호를 개방한 채, 그녀의 몸을 노출하면서, 그곳에 서 있더라고 밴텀 라이언즈가 내게 말했지. (U 12.398-402)

[도란씨]가 어느 일요일 자신의 어린 첩(concubine) 같은 아내와 함께 있는 걸 보았지, 그리고 그녀는 더군다나 에나멜 가죽구두를 신고, 꼬리를 흔들며 성당 통로를 걸어 올라가고 있었지, 그리고 파이처럼 멋진, 바이올렛 꽃을 들고, 꼬마 귀부인 행세를 하고 있었지. 잭 무니의 여동생말이야. 그리고 그 늙은 창녀(old prostitute)인 어미는 거리의 남녀에게 방을 마련해 주는 일을 하고 있었지. 젠장, 잭이 그 녀석에게 책임지라고 했지. 만일 녀석이 임신한 여동생과 결혼(patch up the pot)하지 않는다면, 기필코, 발로 차서 똥을 꺼내 놓겠다고, 그에게 말했지. (U 12.811-816)

이 두 예문은 바니 커어넌 술집(Barney Kiernan's pub)에 등장하는 1인칭 화자가 하는 말이다. 그는 “그의 더블린 하류계층의 말투처럼 군중을 대변”하는 인물이다(Hayman 244). 그는 하숙집이 어떤 “나쁜 평판”(D 61)을 가지게 되었는지 알려준다. 구체적으로 그의 말에서 무니모녀가 성적으로 문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무니여사는 「하숙집」에서 “마담”(madame)으로 불렸는데 여기서는 “늙은 창녀”로 지칭된다. 폴리는 “몽유병에 걸린 창녀” 또는 “첩”으로 지칭된다. 무니여사는 젊은이의 타락에 기여하고 폴리는 몽유병에 걸려 못남성들과 관계를 갖는다. 또한

하숙집을 “boarding house”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숙집” 또는 “매음굴”의 이중의 뜻을 가진 “kip”을 사용한다. 특히 두 번째 예문에서 도란이 폴리와 결혼하게 된 이유가 설명된다. “patch up the pot”은 “남자가 임신하게 만든 여성과 결혼한다는 속어”(Gifford & Seidman 340)로서 도란은 폴리가 임신해서 결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숙집」에서 애매모호하게 처리되었던 그들의 관계가 『올리시스』에서 명확히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올리시스』는 「하숙집」에 숨겨진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처럼 보인다.

그러면 조이스는 「하숙집」이야기를 『올리시스』에 다시 제시하여 「하숙집」을 읽는 방법을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있을까? 독자가 「하숙집」을 읽으면서 확신하지 못하는 내용을 『올리시스』에서 밝혀주어 전기 작품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서술자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여러 비평가들은 그를 믿을 수 없는 화자로 규정한다. 헤이만은 서술자의 의견은 “그가 대변하는 군중”의 의견으로 “하찮고 왜곡된”(Hayman 244)것이라 지적한다. 김종건은 “그는 불륨에 관하여 그리고 시민을 포함한 그 밖의 일에 대하여 최악의 사태를 믿으려고 애쓰고 있다”(8)고 말한다. 엄미숙은 “그는 뛰어난 통찰력으로 인물들의 동기나 감정 등을 평가해주지만 사실을 왜곡하며 편파적이므로 믿을 수 없는 화자”(231)라고 단언한다. 위 예문에서도 화자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을 지적할 수 있다. 무니여사가 “거리의 남녀에게 방을 마련해주는 일”을 하였다는 사실은 「하숙집」에서 무니의 하숙집이 “리버풀이나 만섬에서 온 유동인구”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과 다르다. 화자는 무니모녀를 나쁘게 평가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숙집」에서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다. 폴리가 임신했다는 것도 화자를 신뢰할 수 없기에 애매모호하다.

그렇지만 그가 한 이야기가 완전히 거짓인 것은 아닐 것이다. 무니의 하숙집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 제3자가 정확히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사실은 보는 사람에 따라 또는 전하는 사람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조이스의 믿을 수 없는 화자는 사실이 왜곡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를 통해 사건의 실체에 도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하숙집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이다.

## IV

지금까지 「하숙집」의 애매모호성을 통해 문학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작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작품의 어떤 부분을 통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조이스 작품세계의 기본적인 특징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조이스는 작품에 애매모호한 부분을 많이 제시하여 독자들이 수수께끼와 퀴즈를 풀게 한다. 그러나 이것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퀴즈이기에 독자에게 끊임없는 도전을 요구한다. 조이스 작품은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가 말한 “쓸 수 있는 텍스트”(writerly text)로서 “독자는 더 이상 소비자가 아니라 텍스트의 생산자”가 된다(4). 조이스의 작품은 작가가 제시한 작품의 주제를 읽고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수동적인 독자를 원하지 않는다. 독자로 하여금 작품 속에 흠어져 있는 불완전한 근거를 토대로 의미를 구축해나가는 작업에 동참하게 한다. 조이스 작품은 애매모호하기에 독자들의 수수께끼 풀기는 끝이 없다.

조이스 작품이 난해하여 읽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하숙집」은 조이스를 읽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유용한 텍스트이다. 도란이 풀리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인지 알아보면서 조이스는 사건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작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글쓰기를 통해 사건의 실체에 도달하는 것이 어렵다는 20세기 초반 사상가들의 세계관을 조이스가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조이스의 애매모호한 글쓰기는 인간은 궁극적인 실체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하숙집」을 통해 조이스 작품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체를 파악할 수 없는 「하숙집」 이야기는 『율리시스』에 다시 나와 독자들이 또 다른 차원에서 같은 이야기에 접근하게 한다. 그렇다고 후기 작품에서 초기 작품의 이야기가 명확해지거나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건이 더욱 복잡해져 독자들이 또 다른 수수께끼를 풀도록 유도한다. 이에 따라 작품을 읽는 다양한 시각이 더욱 필요하다.

「하숙집」은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기에 활발한 토의·토론식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작품의 애매모호한 부분을 학생들에게 질문하여 다양한 해석을 유도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도란의 선택이 쉽지 않다는 사실은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토론주제가 되어 활발한 토론을

가능하게 한다. 작품 부분 부분의 의미를 탐색해 가면서 도란의 선택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계속 물어보아 학생들도 작품의 의미형성에 동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작품의 수수께끼는 좀처럼 풀리지 않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진리의 실체에 대한 조이스의 세계관을 파악할 수 있다. 조이스는 「하숙집」에서 애매모호성을 도입해 궁극적인 실체에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준다. 그렇지만 독자는 자신의 “불멸을 보장”(Ellmann 521)받기 위해 수수께끼와 퀴즈를 작품 속에 제시하고 있는 조이스처럼, 진실을 밝히는 작업을 통해 작품의 의미를 다시 쓰는 독자가 되도록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작품을 읽을 필요가 있다.

(고려대)

## 인용문헌

- 김종진. 『율리시즈 연구 II』.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5.
- 엄미숙. 『서술기법의 백과사전: 율리시즈』. 서울: 한신문화사, 1995.
- Barthes, Roland. *S/Z*. Trans. Richard Miller. London: Jonathan Cape, 1974.
- Brown, Terence. “Notes.” *Dubliner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2000.
- Ellmann, Richard. *James Joyce*. 2nd ed. New York: Oxford UP, 1982.
- Gifford, Don. *Joyce Annotated: Notes for Dubliners and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82.
- Gifford, Don & Robert J. Seidman. *Ulysses Annotated: Notes for James Joyce’s Ulysses*. Berkeley and LA: U of California P, 1988.
- Hayman, David. “Cyclops.” *James Joyce’s Ulysses: Critical Essays*. Ed. Clive Hart and David Hayman.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77.
- Herring, Phillip F. *Joyce’s Uncertainty Principle*. Princeton: Princeton UP, 1987.
- Joyce, James. *Dubliner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2000. Abbreviated as *D*.
- \_\_\_\_\_. *Ulysses*. Ed. Hans Walter Gabler with Wolfhard Stepple and Claus Melchior.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86. Abbreviated as *U*.
- \_\_\_\_\_. *Finnegans Wake*.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92. Abbreviated as *FW*.
- Lazar, Gillian. *Literature and Language Teaching: A Guide for Teachers and Trainers*. Cambridge: Cambridge UP, 2005.
- Torchiana, Donald T. *Backgrounds for Joyce’s Dubliners*. Boston: Allen & Unwin, 1986.

**Abstract**

## Teaching “The Boarding House” Using Textual Ambiguities

Seokmoo Choi

To create puzzles, quizzes, and uncertainty, James Joyce incorporated ambiguities into his writings, even in one of his best-known short stories, “The Boarding House.” In this paper, a teaching framework for the story will be suggested for both the literary field and the English education field, with such textual ambiguities working as the backbone. Until now, relatively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how to teach Joyce’s works in a university setting.

The class can be begun with a discussion topic, “Should Mr. Doran marry Polly or run away?”—a question that students are asked several times while reading the story in class. Motivated by such a controversial issue, students will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Mr. Doran and Polly based on evidence from the text. It is found that they had sexual relations and that Polly may be pregnant, despite a lack of definite evidence. The latter issue is explored further in *Ulysses*. Though the narrator in “Cyclops” said that Mr. Doran had been forced to marry Polly because of her pregnancy, his statement cannot be accepted as truth because he was not a trustworthy narrator.

Through textual ambiguities Joyce tried to demonstrate that we cannot reach the truth, a proposition he shared with both philosophers and scientists at the beginning of the twentieth century. When students are encouraged to explore how he used textual ambiguities, they can actively participate in lively discussions in order to expose undiscovered meanings of his writerly text.

- Key words: James Joyce, ambiguity, *Dubliners*, *Ulysses*, “The Boarding House,” teaching literature  
(제임스 조이스, 애매모호성, 『더블린 사람들』, 『율리시스』, 「하숙집」, 문학교육)

논문접수: 2010년 5월 20일

논문심사: 2010년 6월 2일

게재확정: 2010년 6월 12일